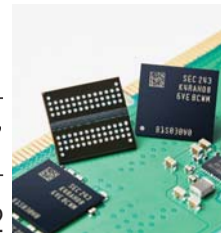


18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15.40	↑ 코스닥	835.89
	(+20.74)		(+1.70)
↑ 금리 (미국 9년)	3.316	↓ 환율 (원/달러)	1334.20
	(+0.042)		(-3.00)

metro® 경제

삼성전자
‘1초에 영화 2편’
12나노급 D램 양산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뒤 유영봉안소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오월 정신, 자유민주 헌법정신 그 자체”

尹, 5·18 기념식 참석

‘오월의 어머니’ 15명과 동반 입장
정부차원 호남 경제발전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6면>

윤 대통령은 18일 광주광역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의 문’에서 5·18민

주화운동 당시 자식을 잃은 ‘오월의 어머니’ 15명을 직접 맞이한 뒤 동반 입장을 했다. 통상, 주요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에 벗어난 윤 대통령은 오월의 어머니와 동반 입장에 현화 및 분향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다”며 “민주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위로했다. 이어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계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냈다”

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다”며 “오월의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을 완성하는 것은 호남의 경제 발전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박정희 기자 pathfinder@

산업부,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

중에 뺏긴 왕좌 되찾자 민간 손잡고 65조 투자

<삼성·LG 등>

경쟁국의 거센 추격을 받는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1위 탈환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손을 맞잡는다. 민간에선 5년간 65조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 특화단지 지정, 규제 해소, 1조원 이상의 연구개발 자금 투입 등 기업 투자에 화답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서울 남대문로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이같은 내용의 ‘디스플레이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업계 대표 및 산업관계자들과 함께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은 2004년 일본을 제치고 17년간 시장점유율 1위를 지켜오다, 2021년 이후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준 상태다. 중국에 이어 한국, 일본, 미국, 대만, 독일 순으로 시장을 차지한다.

中·日·대만 등 경쟁국 추격 거세져
국내 생산증설 등 5년간 65조 투입
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적극 지원
투명·XR·차량용 등 신시장 창출로
기술격차 5년 이상으로 확대 추진

다만,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은 고부가 시장인 OLED 중심으로 세계 1위다. 이를 바탕으로 OLED TV, 폴더블 폰 등 세계 최최초이자 세계 최고 프리미엄 ICT 제품들을 출시해 왔다.

하지만, 경쟁국의 추격 또한 거세다. 중국은 LCD에 이어 OLED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고, 대만과 일본은 OLED에서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차세대 마이크로LED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먼저, 우리 패널 기업들은 IT용 OLED 생산라인 증설,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등에 2027년까지 6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는 세제, 정책금융 지원, 인프라, 규제개선 등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민간투자를 뒷받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5개의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지정해 기업의 투자부담을 대폭 낮추고, 산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금융기관은 신규 패널시설 투자,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자금 등에 약 9000억원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에서 열린 무기발광산업 육성 얼라이언스 출범식 및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국가첨단산업법에 따른 디스플레이 분야 첨단전략세부기술을 신속히 확정하고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정을 적극 검토해 전력·용수·폐수처리·도로 등 인프라 지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65조원의 설비·연구개발 투자가 실행되면 관련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109조원의 연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XR·차량용 등 3대 디스플레이 신시장 창출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OLED 시장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3대 융복합 시장 매출은 2022년 9억달러에서 2027년 150억달러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증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여기에 향후 5년간 약 6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우리처럼 투명하면서 얇고 가벼운 투명 디스플레이를 다양한 산업과 접목하는 실증 연구개발에 약 100억원을 투자한다. 또 메타버스 시대에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XR기용 초소형(패널 크기 0.3인치 이하) 디스플레이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 실증 연구개발 지원 등에 약 300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정부, 패널, 소부장, 콘텐츠, 세트기업 등으로 이뤄진 민간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XR시장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고,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경우 제품 안전성을 종합 검증할 수 있는 실증센터를 구축, 관련 실증사업에 약 200억원을 투자한다.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우선 약 4200억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집중 투입한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거품 논란, MSCI 불발 등 겹박재 속수무책

2차전지 관련주 급락

에코프로그룹 한 달 새 20% 뚝
테슬라 성장둔화 우려 등 겹쳐

최근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고점 대비 두 자릿수 넘게 하락했다. 특히 2차전지 관련주의 황제주로 떠오른 에코프로그룹의 주가가 한 달 새 20% 넘게 하락했다. <관련기사 4면>

고평가 논란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 불발, 배터리 공급 과잉 우려 등 각종 악재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현재 추가 조

정 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예상도 있는 반면 저가매수 시점이라는 상반된 전망도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고점이었다는 지난달 11일 82만 원에 비해 31% 가까이 떨어졌다. 에코프로비엠도 고점 대비 26.62% 떨어졌으며, 에코프로에이치엔 역시 고점에 비해 31.87%가량 하락했다. 금양, 포스코퓨처엠, 엘엔에프 등도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성장둔화 우려, 개별기업 악재 등이 나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2차전지 관련주에서 손을 빼

기 시작한 데 반해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적극적인 매수에 나섰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포스코홀딩스를 2조9211억원을 팔았으며 에코프로를 8018억원 순매도했다.

이밖에도 포스코퓨처엠(3140억원), LG화학(2166억원), 엘엔에프(1967억원), 에코프로비엠(1420억원) 등을 처분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포스코홀딩스를 3조2868억원을 사들였으며, 에코프로를 9827억원 순매수했다.

/원관희 기자 wkh@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박찬대 “한동훈, 가상화폐 정보 공개 거부”… 법무부 “사실 아냐” /사진 뉴스스
▲ 與 “민주, 김남국 의원직 사퇴 먼저 결단하라”

▲ 北, 과거 쏜 인공위성 2개 궤도 운행… “신호 전송 못하는 ‘죽은 위성’”
▲ 총알 뿜어는 방탄복… 성능조작 알고도 입혔다



▲ 김동연, 트뤼도 총리와 가평전투 참전 캐나다軍 추모 /사진 뉴스스
▲ ‘지방규제 자문 전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